

# '전주 전통공연' 글로벌 콘텐츠로 키운다

### 시, 국악방송과 지역전통문화예술 발전 협약 체결... 명품화·대중화·세계화 기여 위해 협력키로

전주시가 판소리 등 전통 문화공연을 세계적인 콘텐츠로 키우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유영대 재단법인 국악방송 사장은 15일 전주시장실에서 '지역전통문화예술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와 국악방송은 이날 △전주 전통문화예술 각 분야의 공동 발전과 문화융성 △전통문화예술의 명품화·대중화·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주전통음악에 대한 활성화 전략 구축 및 추진 △공연예술의 명품화, 대중화, 세계화를 위한 노력 △양 기관의 보유한 콘텐츠 및 지식자원 상호활용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정보교류 및 홍보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전통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옛것을 복원하고 새로운 접목을 시도한 전주의 문화공연들이 글로벌 콘텐츠로 한층 더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문화예술의 전통과 미래를 잇고, 전주 전통문화예술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국악방송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전통문화예술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전주의 문화영토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넓혀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악방송은 2000년 2월 설립 이후 지속 방송망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확대해 왔으며, 현재 14개 라디오 채널과 3개 TV 채널을 운영하며 전통 공연예술 뿐만 아니라 무용·미술·공예 등 우리 전통문화 전반을 전문적으로 방송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과 유영대 재단법인 국악방송 사장은 15일 전주시장실에서 '지역전통문화예술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MZ세대 작가와 함께하는 책 여행

### 전주시, 시청 책기둥도서관서 이슬아·양다솔 작가 초청강연 가져

전주시는 15일 시청 로비 책기둥도서관에서 MZ세대를 대표하는 이슬아·양다솔 작가 초청강연 및 특별한 전주 도서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슬아·양다솔 작가는 이날 '글쓰기가 바뀌는 삶의 풍경에 대하여'를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 △책 이야기 △글쓰기 연재 노동자 및 글쓰기 소상공인으로 생활하기 △글쓰기 훈련기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슬아 작가는 △일간 이슬아 수필집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 △새마을음으로 등의 저자, 해염 출판사 대표이자 방송인, 글쓰기 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양다솔 작가는 △간지럼 태우기 △가난해지지 않는 마음의 저자로, 현재 뉴스레터 '격일 간 다솔'을 연재 중이다.

두 작가는 특강에 이어 강연 장소인 책기둥도서관 등 전주의 특별한 도서관들을 소개하며 "전주에 책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이 너무 놀라워 지인이나 주변 작가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싶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시는 이번 강연을 시작으로 디지털 MZ세대와 온라인 여행자들을 위해 매월 지속적으로 독서 및 여행분야 전문가(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 전주의 도서관을 알리게 된다.

오는 4월에는 2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겨울서점'을 운영하는 김겨울 작가가 전주 시민들을 만나게 되며, 5월과 6월에는 오조·임경선 작가, 김물길 작가가 강연과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전주의 특별한 도서관들과 책 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전주 책 여행은 전주 도서관 여행 인스타그램과 전주독서대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과 사진으로 다시 만나볼 수 있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들에게 전주의 책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재활용품으로 화장지·종량제봉투 교환하세요"

### 전주시, 21일부터 35개 동 주민센터서 재활용품⇄물품 교환사업 시행

화장지나 종량제봉투로 교환받는 재활용품 가시수가 늘어난다.

전주시는 생활 속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35개 동 주민센터에서 '재활용품⇄물품 교환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활용품 교환대상 품목은 기존 종이팩, 폐건전지, 아이스팩 3종에 올해부터는 친환경 샴페어 추가돼 4종으로 늘어난다.

종이팩의 경우 물로 헹군 다음 펼쳐서 건조시킨 후 규격별로 △200ml 20매 △500ml 10매 △1000ml 5매씩 묶어

서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친환경 화장지 1롤로 교환받을 수 있다. 종이팩은 주원료가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필프로 만들어지는 포장재여서 일반 종이류와 분리 배출해야 한다.

폐건전지는 무게나 규격에 상관없이 15개당 친환경화장지 1롤로 교환할 수 있으며, 깨끗하게 세척된 쥘 형태의 아이스팩은 5개당 종량제봉투(10L) 1장으로 바꿀 수 있다. 폐건전지는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분리 배출해야 하며, 물로 된 아이스팩의 경우에는 봉지를 뜯어 물은 버리고 봉지는 재활용 분리배

출 하면 된다.

올해 교환대상에 포함된 친환경 샴페어의 경우 '자원재활용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재활용 가능자원인 폐지, 폐금속, 폐플라스틱, 폐목재를 원료로 만든 샴페어 2개를 모아하면 종량제봉투(10L) 1장으로 교환된다.

재활용품 물품 교환사업은 친환경 화장지와 종량제봉투가 소진될 경우 사업이 종료되며, 시는 올해 사업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의 2배인 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종이팩 교환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교환 품목

과 예산을 늘려 재활용품 물품 교환사업을 전개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교환사업을 통해 △종이팩 23만4661개 △건전지 17만8101개 △아이스팩 4만 8650개를 수거했으며, 이는 2020년 대비 종이팩이 약 298%, 건전지가 약 119% 정도 증가한 수치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재활용품-물품 교환사업은 전주시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작은 실천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야간경관 개선사업' 추진

### 상반기 1억원 투입 경관조명 설치 안전한 보행 환경 제공·외부조명 설치 야간 명소기대

아름다운 전주한옥마을 야간에 고즈넉한 빛이 더해진다.

전주시는 올 상반기에 총 1억 원을 투입해 전주한옥마을만의 은은하고 따뜻한 전통문화의 거리와 어울리고 한옥기와의 처마선을 살린 전통한옥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한옥마을 중심거리인 태조로와 주요 문화시설, 골목길 등 한옥마을의

야간경관을 개선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한옥마을의 따뜻한 풍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옥마을 태조로의 경우 기존 청사 초롱 등에 경관조명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보다 밝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부채문화관, 최명희문화관, 완판문화관, 전주대사습청 등 한옥마을 내 문화시설에는 외부조명을 설치

해 야간에도 전통한옥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골목길을 대상으로 전주조사를 실시해 어두운 구간에 전통등과 벽부등을 설치해 "따뜻하고 정감있는 골목길"을 만들기로 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야간에도 따뜻하고 정감 있는 골목으로 만들어 원주민들에게는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골

목길을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소중한 이야기가 있는 야간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갑수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장은 "이번 야간경관 개선을 통해 한옥마을만의 은은하고 정온한 빛으로 품격 있는 보행환경 구축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관광객과 시민들의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한옥마을 풍경에 어울리는 야간 경관개선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장 한국적인 한옥마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농기센터, 공익직불제 온라인 신청 추가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공익직불제' 신청을 스마트폰 및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비대면 간편 신청과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는 대면신청 등 2가지 방법으로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3월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 간편신청 방식은 2021년 기본형공익직불 등록정보와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일치하는 전주 지역 농업인 2609명이 대상이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 농업인에게는 순차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문자와 카카오톡(농림부 공익직불제 채널)을 통해 신청URL이 발송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 달 4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비대면 미신청자와 방문 신청 희망자, 신규신청자 및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

로 한 방문접수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 공익직불금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중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신규신청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이다.

공익직불제는 지급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가운데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간밭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

시는 신청·접수자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이행 여부를 점검해 오는 9월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는 뒤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